



KIA 선동열 감독이 7일 무등경기장에서 진행된 2013 시즌 첫 합동 훈련에 앞서 선수단에게 '우승'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SUN “타이거즈 목표는 오직 우승”

KIA 합동훈련 2013 시즌 ‘시동’

“목표는 우승,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라.”
 KIA 타이거즈가 7일 무등경기장에서 합동훈련을 갖고 2013을 위한 시동을 걸었다.
 고창에서 두 번째 시즌을 맞은 선동열 감독은 “올 시즌 목표는 우승이다. 물관리 잘해서 부상없는 시즌을 보내라”며 “다른 선수들을 이기려면 먼저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 이기는 것을 목표로 자신과의 싸움을 하라”고 선수들에게 주문했다.
 우승을 위해 선 감독이 밝힌 비장의 무기는 ‘기동력’. 또 지키는 야구와 부상 탈출로 2013시즌 정상에 오르겠다는 각오다.
 ◇뛰는 야구, 200도루 고지 넘는다.
 KIA는 FA 대어 김주찬의 영입으로 톱타자 이용규와 함께 막강 테이

블 세터진을 구성했다. 선 감독은 기동력에 초점을 맞춰 공격력을 극대화하겠다는 생각이다.
 지난해 타자 전원에게 자유롭게 뛸 수 있는 그린 라이트를 부여, 기동력을 강조했던 선 감독은 이번에는 200개의 도루라는 구체적인 목표 수치를 내어놓았다.
 KIA의 팀 역대 최다 도루는 170개(1996년). 이 기록을 넘어 1995년 롯데(220개) 이후 처음으로 200 도루 고지를 넘겠다는 계획이다.
 8개 구단 최강을 자랑하는 테이블 세터진과 김선빈·김원섭·안치홍의 스피드가 기동력 야구를 좌우한다.
 ◇지키는 야구, 마무리와 수비로 철벽 방어.
 ‘지키는 야구’의 대명사 선 감독이지만 지난해 KIA는 마무리의 부재와 흔들리는 불펜으로 번번이 뒷심 싸움

“뛰어라” 200도루... 기동력으로 승부
 “지켜라” 마무리·수비강화 철벽방어
 “이겨라” 철저한 자기관리 부상 예방

에서 패를 기록했다.
 준비되지 않은 ‘지키는 야구’의 실패를 거듭하지 않겠다는 게 선 감독의 각오다. 마무리를 우선 확정하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김진우를 마무리로 돌리고 양현종을 선발로 투입, 윤석민·서재응·앤서니·소사·양현종의 선발진을 만드는 게 우선 계획. 시즌 중간 쉬어가는 틈을 잘 활용해서 지키는 야구를 완성하겠다는 생각이다.
 성숙해진 박지훈과 진해수의 활약 그리고 루키 고영창·손동욱·이효상의 신데렐라 탄생을 기대하고 있다.
 견고해진 수비도 지키는 야구에 힘을 더한다. 천연잔디로 교체한 지난해 안치홍·김선빈 ‘꼬꼬마 키스톤’은 아쉬웠던 수비로 아쉬움을 남겼다. 이들은 마무리 캠프에서 혹독한 훈련을 소화하면서 만족스러운 성과를 냈

다. 투수들의 어깨를 든든하게 해줄 견고한 수비가 지키는 야구의 또 다른 키워드다.
 ◇자신과의 싸움, 부상을 피하라.
 뛰는 야구, 지키는 야구를 위한 선행 조건은 ‘자기 관리’다.
 지난 시즌 부상 도미노 속에 이범호-최희섭-김상현으로 이어진 ‘LCK 포’는 시즌 내내 휴업상태였다. LCK가 가동된다면 쉬어갈 곳 없는 숨막히는 타선이 완성된다. 부상에 어려움을 겪었던 선 감독은 선수들에게 철저한 자기관리를 주문했다. 부상과 1차적인 싸움 그리고 이기기 위한 자신과의 싸움을 통해 강한 선수, 강한 팀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선 감독은 “목표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려운 때 빨리 극복을 해야한다. 마인드 컨트롤이 중요한데 선수들이 하고자 하는 의욕이 강하다. 좋은 성적으로 팬들에게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전북 부영 프로야구 10구단 신청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왼쪽)과 김완주 전북도지사가 7일 오후 서울 강남구 도곡동 한국야구위원회에서 10구단 신규회원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 신청서가 담긴 상자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원 KT와 경쟁... KBO 다음주 확정 발표

프로야구 제10구단 탄생이 임박했다.
 전라북도도를 연고지로 선택한 부영그룹과 경기도 수원시를 등에 업은 통신기업 KT가 7일 한국야구위원회(KBO)에 프로야구 10구단 회원가입 신청서를 제출했다.
 공정성이 최대 관건인 만큼 양측은 평가 과정을 대외에 알리지 않겠다는 ‘비밀유지 협약서’를 지난 해 말 제출한 데 이어 이날 회원가입 신청서를 내면서 선정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각서도 동봉했다.
 이제 10구단 창단의 꿈은 KBO로 넘어갔다.
 이날 신청서 접수를 마감한 KBO는 바로 외부인사 20명 안팎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가동한다. 사무국에서 일단 양측의 제출 서류가 제대로 갖춰졌는지 검토하고 나서 이르면 10일경 평가위원회 회의를 열어 약 30개에 달하는 평가 항목을 놓고 비공개 심사를 진행한다.
 평가위원회 회의 때에는 유치 후보들의 프레젠테이션도 진행한다.
 KBO는 11일 이사회를 열어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를 보고하고 빠른시일 내에 총회를 열고 10구단 창단 기업과 연고 도시를 확정할 방침이다. 야구규약 8조에 따르면 구단을 신설하려면 총회에서 재적 회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연합뉴스

윤석민·이용규·서재응 연봉협상 어떻게?

윤·이 FA 앞두고 눈치싸움... 타구단에서도 관심
 서재응, 지난해 삭감 아쉬움까지 보상 받을 각오

7일 KIA가 새해 첫 합동훈련을 시작했다. 이제 막 선수들이 기지개를 쳤지만 WBC(월드베이스볼클래식)를 앞둔 국가대표 3인방 윤석민·서재응·이용규의 몸과 마음은 바쁘다.
 대회 준비를 위해 예년보다 일찍 그리고 빨리 시즌 준비를 하고 있는 3인방. 하지만 해가 넘어가도록 이들의 연봉 협상 소식은 아직 들리지 않고 있다.
 올 시즌이 끝나면 FA 자격을 얻는 윤석민과 이용규의 협상 결과는 다른 구단들도 주목하고 있는 사안이다. KIA도 ‘FA 프리미엄’을 놓고 고심할 수밖에 없다. 구단들은 FA를 앞둔 선수의 마음을 잡기 위해 또 전략적으로(FA를 영입할 경우 직전 연봉의 300%, 혹은 200%와 보상선수 한 명을 전 소속팀에 내줘야 한다) ‘FA 프리미엄’을 더해 연봉을 대폭 인상하는 경우가 많다.
 윤석민과 이용규는 KIA에 꼭 필요한 자원. 또 윤석민이 미국 진출을 우선 추진하고 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을 때는 친정팀이 우선이라는 생각이다. 이용규도 KIA 잔류 의사가 강하다. 두 대어의 마음을 이끌어내기 위한 눈치 싸움이 치열할 수밖에 없다.
 윤석민의 경우 지난해 시즌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3.12의 방어율로 9승을 챙겼다. 3번의 완투를 했고 완봉은 두 차례 기록하며 보통의 활약을 했다. 투수 4관왕에 올랐던 2011년 미국 진출 대신 KIA 잔류를 선택했던 부분도 윤석민의 마음에 남아있다.
 이용규는 기나긴 슬럼프에도 불구하고 ‘부상 투혼’속에 도루왕과 득점왕에 오르며 2012시즌 KIA 유일의 골든글러브 수상자가 됐다. 여기에 KIA가 외야수 김주찬을 50억이라는

초대형 금액에 영입을 하면서 ‘상대적인 기대감’까지 더해졌다. 지난해 서재응은 4000만원 삭감된 2억9000만원에 뒤늦게 재계약을 끝냈다. 4.28의 방어율로 8승9패를 기록하는데 그쳤지만 불펜의 위기 상황에서 임시 마무리로 뛰면서 2홀드 2세이브를 기록했던 만큼 서재응에게는 아쉬움이 남는 계약이었다. 2012시즌에는 2.59의 방어율로 9승을 기록했다. 두 경기 연속 완봉, 선동열 감독이 가지고 있던 선발 무실점 이닝(37) 기록을 갈아치우며 마지막까지 4강 싸움의 희망을 불태웠던 만큼 지난해 아쉬움까지 보상받고 싶다는 생각이다.
 우승이라는 목표의 핵심인 국가대표 3인방이 마음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을지에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홀~ 쪽해진 나지완 출산했나?” “최향남, 산에서는 타잔같아요”

KIA 덕아웃 말말말

▲뭘가 이렇게 빨리 올라와 = 캐치볼을 하던 김상훈, 경기장 맞은편 신축 구장을 보고, 현재 신축구장은 3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4~5층 구간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나지완 출산하고 왔네 = 김평호 코치, 나지완이 살을 많이 빼서 배가 훌쩍해졌다고, 선동열 감독은 체지방을 측정해 일정 기준을 통과 하지 못하면 연봉의 10%를 깎겠다는 엄포를 놔다. 요주의 인물이었다 나지완이 기준을 통과하면서 선수단 전원 체지방 검사를 통과했다.
 ▲아 힘들구나 = 최고령 선수 최향남, 24번째 시즌을 맞는 기분이 어떨까요 묻자, 예전보다 체력

적인 부분은 힘들지만 기복없는 시즌을 목표로 하겠다며,
 ▲타잔이예요 = 휴식기간에 산을 다녔다는 최향남을 보고 이동훈이, 산을 잘 탄다고,
 ▲눈을 나더러니까 = 마무리 캠프 도중 특별지명으로 조영훈을 NC로 보낸 선동열 감독, 청첩장에 ‘우리 감독님’이라고 써서 주더라면서,
 ▲2월8일 페이스쇼 = 캐치볼을 하고 있던 윤석민, WBC(월드베이스볼클래식) 일정 때문에 예전보다 일찍 페이스를 끌어올리고 있다면서,
 ▲할아버지 감기든다. 옷 좀 입혀 = 선수들 훈련을 지켜보던 이순철 수석코치, 최향남이 걸음을 벗고 훈련 하는 것을 보고,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p>기차표/항공권/승선권 국제선 할인항공권 판매 (주)대원여행사 062)526-7000 신세계백화점 사거리 www.daewontour.com 광주역 062)525-4835 후원: 한국관광공사 강원권협력단</p>	<p>태백산 눈꽃 하이원 스키장 곤도라 탑승 기차여행</p> <p>출발일 1월 25일(금) 22:00경 광주역 출발</p> <p>여행비 성인 85,000원 어린이: 75,000원</p> <p>여행코스 태백산 눈꽃 축제 / 트레킹 / 석탄박물관 하이원스키장 관광곤도라 탑승</p>	<p>정동진 일출 추암 촛대바위/하이원 스키장곤도라탑승 기차여행</p> <p>출발일 1월 25일(금) 22:00경 광주역 출발</p> <p>여행비 성인 85,000원 어린이: 75,000원</p> <p>여행코스 태백산 눈꽃 트레킹 / 천제단 / 석탄박물관 하이원스키장 관광곤도라 탑승</p>	<p>대관령 눈꽃 눈꽃 축제 기차여행</p> <p>출발일 2월 1일(무박2일) 23:30경 광주역 출발</p> <p>여행비 성인 85,000원 어린이: 75,000원</p> <p>여행코스 대관령에서 일출관망 / 알펜시아 스페셜 동계올림픽관람 / 대관령눈꽃축제장</p>
--	--	---	--